

투데이 칼럼

북한의 의식주 문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방영한 새 기록영화 가운데 '인민의 어머니'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애간함을 쓰는 모습을 담고 있다.

기록영화 '인민의 어머니'는 "우리 인민들의 식탁을 하루빨리 풍성하게 해 주자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간절한 열원입니다."라고 소개한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애민 이미지를 거듭 띄우며 식량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작황 부진 등으로 상황은 좋지 않다.

FAQ,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지난해 생산 목표량의 30%가 줄었고, 미국 농무부는 식량 121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북한 해외 공관들은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의 식량 조달에 애간함을 쓰고 있다. 송림형, 남포항 등에서 식량 포대로 보이는 물체들도 다수 포착됐다.

북한은 우리 생산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제 농업기구의 평가다. 일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집단영농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개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영농의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북한의 일반 경제 발전이 매우 부



정복규
논설위원

진한 상태에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 요소 역시 공급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핵과 미사일 활동은 2022년에만 지난 38년 가운데 연간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군방연구원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한 번 쏘는 데 2,000만에서 3,000만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은 5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00억 원에 달한다.

북한은 인건비가 한계 비용인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미사일 발사 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단거리 중거리 또 ICBM 발사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조 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량안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단 미사일 안보에

식량을 투입함으로써 먹는 문제 해결에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질수록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변수도 함께 늘고 있다. 일본이 최근 군사력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변수다. 일본은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크게 늘리고 군사 전략도 방위에서 반격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북한 위협 때문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이란 분석이다. 미중 대결 구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기사다 일본 총리는 방위상과 재무상을 관저로 불러들인 뒤, 내년 부터 5년간 43조 엔, 412조 원의 방위비 확보를 지시했다.

앞서 기사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일본의 전력 증강 명분은 역시 북한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내세워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안보 전략에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발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적 도전이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역대 군비경쟁을 부추겨 안보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특히 위태로운 안보를 얘기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지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비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한다며 안보 전략의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미중 대결을 강화시켜 자칫 한반도가 안보 딜레마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설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진입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당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은 없었다던 군은 입장을 번복했다.

침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이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입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일선 부대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비태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검열을 진행하던 중 당시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 보안 상 알릴 수 없지만,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그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

정된 구역이 P-73으로, 북쪽으로는 서울시청과 이화여대 입구, 동대문까지 포함된다. 합참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만을 비행했다며 P-73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한편 합참은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1월 5일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가상의 적기를 상대로 방공무기와 헬기 등 감시 자산과 타격자산을 운용해 실사격 훈련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일부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무인기 침범 사건은 국민 불안을 키운 것이 사실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에 탄전을 기하기 바란다.

전주스포츠클럽의 이웃사랑

전주 평화동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전주스포츠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난해 12월 16일 전주연탄은행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200만 원 상당의 연탄 2,500장을 기증했다.

전주스포츠클럽 오영근 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파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번 기증식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주스포츠클럽은 지난해 12월 8일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지체장애인은 이곳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체육 활동도 즐기면서 건강도 함께 챙기고 있다.

전주스포츠클럽은 전주 한바탕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구, 배드민턴, 탁구, 당구, 헬스, 요가, 다이어트 맨스, 배구, SNPE 등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생활체육반과 전문선수반으로 이원화 했으며

전주 시민의 생활체육형 프로그램의 정착과 전문 선수 발굴 및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여자농구, 여자배구, 남자탁구, 유도초등부, 초·중등부 컬링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웃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겨울 한파에 소외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보람 있는 일이다. 연이은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행렬에 나선다. 성금은 저소득층 무료급식 및 난방비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하게 쓰인다.

주위에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많다.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베네딕토 16세 장례 미사 열리는 성 베드로 광장



지난 5일(현지시간) 바티칸시티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고 베네딕토 16세 명예교황의 장례 미사가 열리고 있다. 미사 후 베네딕토 16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본관 지하의 동굴에서 영면에 들었다.

LG 올레드 몰입형 체험하는 CES 방문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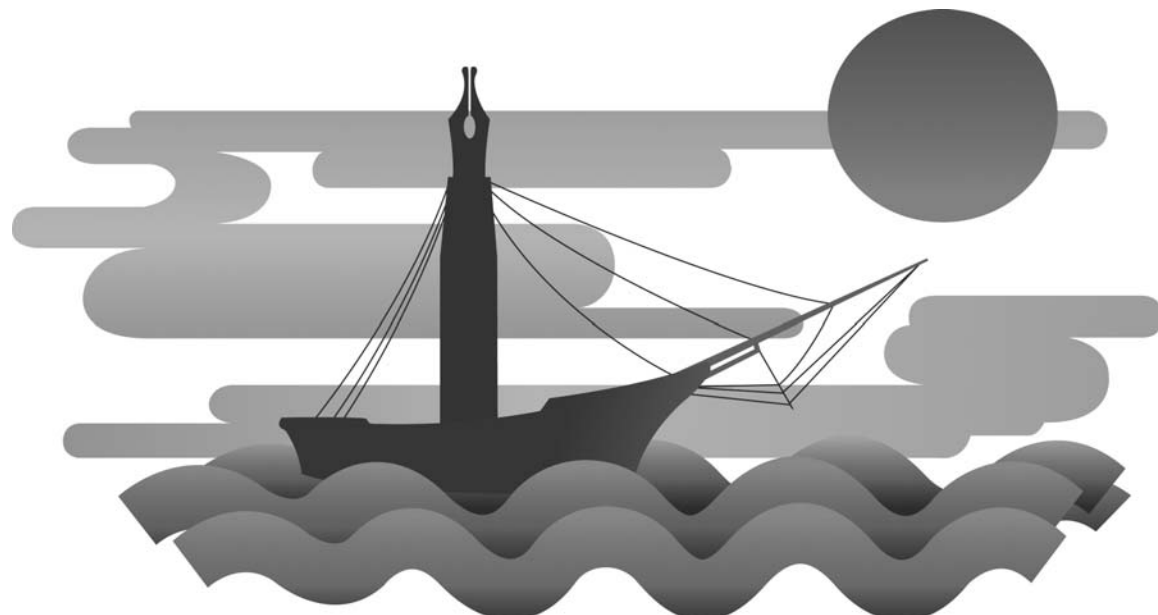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의 LG 전시관 몰입형 방에서 한 방문객이 LG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동기화 시스템을 체험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